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TV 및 언어적 훈련의 효과*

The Effect of Television and Verbal Training on Altruistic Behavior of Preschoolers

우 회 정**

Woo, Hee Chung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ltruistic TV viewing and verbal training on the altruistic behavior of preschool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56 boys and 57 girls from a kindergarten in Kwachon, Kyung-gi do. The subjects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conditions: in the first condition subjects were shown video tapes designed to portray prosocial themes (TV modeling group); in the second condition subjects saw the video tapes in addition to verbal training (TV modeling plus verbal training group); in the third condition subjects received neither TV modeling nor verbal training (control group). Statistical analysis was by ANOVA and Scherré te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truistic behavior between the TV modeling and the TV modeling with verbal training group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격심해지는 폭력·범죄·불신·개인주의의 팽배현상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반사회적인 행동에 쏠리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적극적 태도가 장기적 교육적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그

경향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Perry & Bussey, 1984).

따라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도모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전환시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동정과 공감을 느끼고, 기꺼이 도움행동을 수행하며, 협동적으로 일을 처리해가도록 적극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타적 습성을 형성하는데 기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연구조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여하는 사회적 경험들에 주목해왔다.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아동 양육방식으로는 아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할 때 적절히 베풀어지는 부모의 온정(Bryant & Crockenberg, 1980)과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확고한 훈육을 통해 강조하는 예방적 접근(Olejnik & Mckinney, 1973), 그리고 희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귀납적 추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강화와 언어적 귀인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 개인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울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 곤경에 처한 사람의 특성에 관한 변인, 그리고 문화적 변인의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Bar-Tal, 1976), 이 중 상황적 변인에는 친사회적 행동 관찰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어, 모델을 통한 관찰학습이 친사회적 행동 습득에 도움이 됨을 밝히고 있다.

연령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Zarbatany등(1985)은 실험실 연구를 통해 아동의 관대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이타적 성향의 증가라기 보다 성인의 기대나 요구에 민감해지게 되어 그 기대에 대한 순응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Rheingold(1982)도 이타행동에 있어서 어린 아동들도 나이는 아동과 비슷하며 때로는 능가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여, 어린 아동은 개념적이고 인지적 한계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해, 어린 아동들도 훈련을 통해 더욱 이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모델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TV주인공 등의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TV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가시적

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TV는 비의도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사회화시키게 되므로, 아동이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심리적 저항감 없이 잠재적 사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TV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오늘날 TV의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아동들의 생활에서 TV를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유태영(1989)도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TV가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지, 시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다각도로 연구하여, TV를 제거하고자 하는 태도보다는 TV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V가 교수매체로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언어적 훈련 과정 및 내적 귀인의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은 친구와 나뉘 갖기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친구와 나뉘 갖기 행동은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가?
- 3) 친구와 나뉘 갖기 행동에 있어서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4)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은 일반화될 수 있으며, 또한 지속효과가 있는가?
- 5)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화 및 지속효과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6) 지연된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화 및 지속효과는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과 성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용어로(Perry & Bussey, 1984), Mussen 등(1984)에 의하면 나눠주기, 도와주기, 협동하기, 동정심을 표하기 등의 문화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도덕적 행동을 지칭한다. 이에 비해 이타행동은 행위자의 희생을 요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한 범주로 간주한다. 이타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자기통제와 자기탐닉의 절제가 요구되는 행동이며, 타인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억제해야하는 자기부정이라는 독특한 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덕적 행동과는 차이를 보인다(Perry & Bussey, 1984). 그래서 이타행동은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감정이입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좌절된 원인을 발견해내고, 그 좌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같은 특별한 타인 지향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대상 아동이 5~6세의 취학전 연령이므로 그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사람의 의도나 동기를 추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친사회적 행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분명한 사회적, 물질적 보상을 전제하지 않고 행하는 '개인의 나눠주기나 희생'이라는 Bryan과 Test(1967)의 정의를 채택하여 실험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이론

특성이론가들은 친사회적 행동도 하나의 특수한 행동 부류로 보고, 안정적인 개인차 측정에 관심을 둔다. 개인은 상황에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이타적 성향을 저마다 다른 정도로 소유하고 있으며(Stanhope, Bell & Parker-Cohen, 1987), 그 차이는 유전적 요인이나 사회학습 경험, 혹은 이들의 조합의 결과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종의 생존을 위해 개인보다는 전체에 이익이 되는 특징들이 자연도태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으로 설명한다.

인지발달론적 견해를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이타행동의 증가는 아동의 인지 수준의 발달 및 도덕적 추론의 성숙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권민균, 1988).

정신분석학 입장의 Freud학과 이론가들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친사회적 행동은 초자아가 발달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본다.

조건화이론가들의 견해는 돕는 행동이 외적으로 보상되었을 때 생긴 어떤 즐거운 정서가 돕는 행동과 도움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고와 연합된다는 '정서의 조건화'에 의해 이타행동이 내면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Bandura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습 이론가들에 의하면, 외적인 보상이나 벌보다는 아동이 점차 사회화되어감에 따라 축적된 사회학습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기준에 준해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보상(공지, 자존감)하거나, 벌(수치심, 죄책감)하는 내적인 반응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3. 사회인지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정서적 반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나와 연관된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최근 문헌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인지와의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다.

1) 도덕적 추론과 이타행동

Eisenberg-Berg와 Hand(1979)는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수혜자의 필요에 주목하는 더 정교한 추론방식을 사용할수록 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아동의 도덕적 행동의 발달은 도덕적 사고에 비해 명확한 진보를 보이지도 않고, 아동이 쉽게 상황요인의 지배를 받고 자기만족욕구에 의해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단과 행동은 상호관련성이 있지만 차이를 보일수 있다(Maccoby, 1980).

2) 감정이입과 역할취득

Iannotti(1978)등 연구자들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나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여러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밝혔다.

감정이입이 왜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되는가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으로 느끼게 되는 불쾌감의 해소를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기적 동기의 입장과 순수한 이타적 반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Batson, 1978).

3) 자기 지각

최근 연구들은 타인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각도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이타적 행동이 가치로운 일임을 가르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이 맞추어 성취할 것을 요구하면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Baumrind, 1971). 그리고 아동의 선행에 칭찬을 해주어 자존감을 높여 주고, 스스로 선택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적귀인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한다(Grusec, Kuczynski, Rushton &

Simutis, 1978).

4. 선행연구

1). TV의 역할

TV는 아동의 행동, 태도, 규준 및 가치를 규정하는 사회화의 큰 힘이다. TV시청과 공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TV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TV가 인간 행동과 진보에 공헌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TV의 교육매체로의 효용에 대한 비판은 TV가 수동적 학습을 조장시키고, 일방적인 전달매체이므로, 시청 아동의 반응에 개별적인 피이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애정의 보상을 통한 강화의 후속 조치가 약하다는 점이다(Lesser, 1977).

이에 대해 TV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우수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2) 언어적 훈련

아동에게 프로그램을 시청하기전에 성취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면 적극적인 시청자로서 창조적인 지적활동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며(Anderson & Field, 1983), 시청 중에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로 상황을 보충해 주어 높은 주의 집중도를 유지하고(Reiser, Tessmer & Phelps, 1984), 아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설명해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이해와 언어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박문태, 1989). 또한 시청 후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재학습시키는 과정이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다(Gagne, 1980).

위와 같은 가정아래 친사회적 TV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친사회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한 Friedrich 와 Stein (1972, 1973), Coates 등(1976)과 Friedrich-Cofer등(1979) 많은 연구자

들은 “Mister Rogers’ Neighborhood”나 “Sesame Street”같은 친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한 아동들의 친사회성 증진을 보고했다. 또한 TV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후속조치(역할놀이, 언어적으로 명명해보기(Verbal labeling)등)가 긍정적 결과를 강화시켜 준다는 고무적인 제언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TV프로그램의 시청효과를 알아보고 더불어 언어적 훈련과정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N유치원 원아로, 3개 유치반 아동 113명이다. 남아 56명, 여아 5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담임 교사가 실험자가 되어 자연스런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세가지 처치조건(실험집단 I:친사회적 TV프로그램 시청, 실험집단 II:친사회적 TV프로그램 시청+언어적 훈련, 통제집단)에 반을 단위로 무선배당하였다.

실험대상을 5~6세 연령의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사회생활의 초보적 생활습관과 태도를 익혀나가는 중요한 사회화과정에 있으며, TV를 많이 접하지만 무비판적인 수용자로서 TV의 유해한 자극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건전한 심성과 태도를 키우는데 특히 역효과가 나기 쉬운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차 측정에서는 실험집단II의 남·여 각 1명씩의 결석으로 111명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및 측정도구

(1) 모델학습 훈련도구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유아대상 TV교육 프로그램인 ‘딩동댕 유치원’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서로 양보하기, 협동하는 마음과 태도,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의 8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VTR로 상영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친사회적 행동 모델로 적합한지의 여부는 아동학 전공자 2명이 내용타당도로서 확인하였다.

(2) 언어적 훈련도구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참고로, 능동적인 시청자세 유도, TV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친사회적 행동의 언어적 지시, 그리고 아동의 친사회적 성향에 대한 내적 귀인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8개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작성하였다.

(3)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

Green과 Schneider(1974)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용 도구를 박경원(1986)이 이를 수정 작성한 것을 참고로 하고, 유치원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피험 아동들에게 적절한 내용과 어구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친구와 나눠가기

간식시간에 교사가 8개씩의 초코렐을 나눠주면서 옆반의 받지 못하는 친구들과 나눠먹고 싶은 사람은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 상자에 넣도록 했다. 이때 혼자 다 먹어도 좋다는 말과 봉투에 넣은 초코렐의 숫자는 비밀이라고 얘기해 준다. 봉투에 넣은 초코렐의 갯수가 친사회적 행동의 1차 측정 점수가 된다.

2) 불우 아동돕기

측정 당일 아침에 교사가 피험자에게 현장학습

에 질서있게 입한 덧가로 미리 5자루씩의 연필을 선물한다. 실험자가 입장하면 봉사단에서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담임 교사가 피험자에게 설명한다. 이어 실험자는 아동들에게 불우 아동을 돕기 위한 학용품 수집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의향이 있으면 학용품을 모아달라고 말한다. 이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지시가 끝나면 교사가 그날 아침에 준 연필을 상기시키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봉투에 넣어 제출토록 했다. 봉투는 1차 측정과 다른 색과 모양으로 준비해서 새롭게 느끼도록 했다. 봉투에 넣은 연필의 숫자가 친사회적 행동의 2차 측정 점수가 된다.

이 측정은 아동들이 친구가 아닌 낯선 인물에게도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것인가와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이 지난 후까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일반화 및 지속효과 테스트이다.

3. 실험과정 및 절차

연구대상과 다른 유치원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실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1989년 9월 20일에서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8회의 VTR을 상영했으며, 1차 측정은 실험 마지막 날에 2차 측정은 실험 종료후 일주일 경과후에 실시하였다.

실험장소는 피험자들의 유치원 교실이었고, 교사를 직접 훈련시켜 실험자로 참여시켰고, 2차 측정에서는 피험집단의 처치조건을 모르는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 1인이 교사와 함께 참여했다.

VTR은 매일 15분씩 8회에 나누어 상영했고, 실험집단Ⅱ는 언어적 훈련을 추가로 받았다.

각 처치 집단별 실험 및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

다.

1) 통제집단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지 않고 실험집단의 처치 과정이 종료된 후 같은날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다.

2) 실험집단 I

비디오 테이프를 실험집단Ⅱ와 같은 시간에 다른 교실에서 시청한 후 후속 조치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3) 실험집단 II

상영전에 미리 시청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호기심을 유도, 능동적인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청후 언어적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담임교사로 하여금 실험기간중에 아동들 스스로가 착한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의지를 갖고 있음을 자주 일깨워 주고, 착한일을 했을 경우 흡족히 칭찬해 주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05의 유의수준에서 이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 F값이 유의할 경우에는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Scheffé 중다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친구와 나뉘갓기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2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별로 친구와 나뉘갓기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표 1〉 친구와 나눠갖기 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조건과 성별간의 이원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DF	SS	MS	F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조건(A)	2	365.069	182.534	74.023**
성별(B)	1	4.107	4.107	1.666
A X B	2	1.519	0.760	0.308
오차	107	263.853	2.466	
계	112	635.929		

**P<.001

음을 알 수 있다. 남녀집단에 따른 차이와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어느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중다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TV만 시청한 실험집

단 I 과 TV와 언어적 훈련을 동시에 실시한 실험 집단 II는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실험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불우아동집단(일반화와 지속효과)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 및 성별에 따라 유

〈표 2〉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 따른 친구와 나눠갖기의 Scheffé test

	통제집단 (0.72)	실험집단 I (3.70)	실험집단 II (5.37)
통제집단(0.72)		2.98*	4.65*
실험집단 I (3.70) (TV)			1.67*
실험집단 II (5.37) TV+언어적훈련			

*P<.05 () : 평균

〈표 3〉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 따른 친구와 나눠갖기의 Scheffé test

	통제집단 (0.50)	실험집단 I (3.48)	실험집단 II (4.65)
통제집단(0.50)		2.98*	4.15*
실험집단 I (3.48) (TV)			1.17*
실험집단 II (4.65) TV+언어적훈련			

*P<.05 () : 평균

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과 성별의 상호작용 여부를 보기 위해 3×2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별로 불우 아동 돕기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녀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서는 어

〈표 4〉 불우 아동 돕기 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간의 이원 변량 분석

변 량 원	DF	SS	MS	F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조건(A)	2	259.259	129.630	56.491**
성 별 (B)	1	26.865	26.865	11.707**
A X B	2	3.408	1.704	0.743
오 차	105	240.943	2.295	
계	110	533.189		

**P<.001

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별로 Scheffe 중다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

녀 모두 TV만 시청한 실험집단 I 과 통제집단, TV와 언어적 훈련을 함께 받은 실험집단 II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실험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5〉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 따른 불우 아동 돕기의 Scheffé test

	통제 집단 (0.83)	실험집단 I (3.90)	실험집단 II (4.83)
통제 집단(0.83)		3.07*	4.00*
실험집단 I (3.90) (TV)			0.93*
실험집단 II (4.83) TV+언어적훈련			

*P<.05 () : 평균

〈표 6〉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 따른 불우 아동 돕기의 Scheffé test

	통제 집단 (0.33)	실험집단 I (2.57)	실험집단 II (3.75)
통제 집단(0.33)		2.24*	3.42*
실험집단 I (2.57) (TV)			1.18*
실험집단 II (3.75) TV+언어적훈련			

*P<.05 () : 평균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모델로서 TV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매체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둘째, 부모나 성인의 개입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TV모델링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한 처치 조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어느 학습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본 결과 남아의 경우, 통제집단과 TV모델링 과정을 거친 집단, 통제집단과 TV모델링 및 언어적 훈련을 함께 받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아의 경우는 통제집단과 각 실험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TV모델링 및 언어적 훈련을 함께 받은 집단이 TV모델링 과정만 거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과 성별에 따라 훈련이 끝난 일주일 후에 측정한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화 및 지속 효과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본 결과, 친사회적 학습 경험과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경험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불우 아동을

위해 더 관대하게 학용품 수집에 참여했다. 그리고 어느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TV의 친사회적 모델을 관찰한 집단과 통제집단, 그리고 TV모델링에의 노출과 언어적 훈련을 함께 받은 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예견했던 바와 일치점을 보이기도 하고 다소 상이한 점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들은 친사회적인 내용의 TV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며 다른 상황에까지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 시킬 수 있으리라는 예견을 지지해 주었다. Friedrich-Cofer 등 (1979)은 역할놀이나 언어화된 훈련과정 없이 친사회적 내용의 TV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아무런 훈련 없이 친사회적 내용의 TV만을 시청한 집단에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여 Friedrich와 Stein (1972, 1973), Coates 등 (1976)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TV만 시청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 것은 아동과 함께 TV를 시청한 담임 교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많은 연구 결과들은 TV가 친사회적 모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본 실험 결과를 지지해 준다(Sagotsky, et al., 1981; Grusec, et al., 1978a)

언어적 훈련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남아에게는 언어적 훈련이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유도

해내지 못했다. 이는 Friedrich와 Stein(1975)이 언어적으로 명명해보기 같은 언어적 훈련은 그 과정상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청하고, 언어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므로 여아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령전기의 남아들은 활동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여 역할놀이를 통한 훈련에 더욱 몰두했을 것이라는 설명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일반화 및 지속 효과를 측정된 2차 테스트의 결과에서는 학습 조건 뿐 아니라 남녀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차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측정 방법과 상황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나눠 갖기로 측정된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상황은 경쟁적 상황이 아니므로 남아도 높은 나눠주기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불우 아동 돕기에서는 불우한 이웃에 대해 여아가 더 공감하고 돕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통적 성역할과 합치되므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테스트에서는 여아에게도 언어적 훈련이 지속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Grusec 등(1978b)은 모델링은 특정하게 주어진 상황으로 기억되어 주어졌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아동이 스스로 그 경험을 일반화시켜야 하므로, 아동에게 타인을 위한 관심의 일반적 원리를 추출해내도록 너무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언어적으로 일반적인 이타행동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델링이 언어적 지시보다

내면화에 성공적이라는 귀인이론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언어적 훈련을 받은 후 즉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받을지도 모르는 비난을 염려하여,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으며, 지연된 일반화 테스트에서는 지시에 의한 외적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모델링만 경험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2차 측정에서는 내적귀인과정이 친사회적 행동점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볼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내적귀인과정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 상황의 조작으로 인한 교사와 실험자의 영향과 측정시 아동 자신의 것을 회생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히 얻은 것을 나누어 갖거나 기부한 결과이므로 얼마만큼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또 본 연구의 가장 큰 취약점인 무선배정을 통한 실험 대상자의 사전 경험을 통제하지 못한 점과 친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부재로 포괄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제한점과 실험과정을 토대로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한 연구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TV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TV프로그램의 우리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는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용 분석과 실험 연구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TV가 교육매체로서 활용될 때 미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세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적 훈련 방법의 역할놀이를 통한 훈련이나 친사회적 성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게임을 실시하거나 적절한 놀이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우리라 생각된다.

네째, TV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친사회적 성향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가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 배경 및 아동의 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실험상황에서 반복 측정을 할 경우, 피험자가 실험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연 상황의 대인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이타적 성향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권민균 (1988). 슬픔과 기쁨, 그 정서의 소재 유형이 중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원 (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문태 (1989). 텔레비전 유아프로그램의 현황. 한국 어린이 육영회 회보, 47, 4-6.
- 유태영 (1989). 텔레비전과 어린이. 한국 어린이 육영회 회보, 47, 7-9.
- Anderson, D. R., & Field, D. E. (1983). Children's attention to television: Implications for production. In M. Meyer (Ed.), Children and the formal features of television. N. Y.: K. G. Saur, 56-96.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 Y.: Wiley.
- Bar-Tal, D., & Raviv, A., & Leiser, T. (1980).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mpirical evidence. Development Psychology, 16, 516-524.
- Batson, C. D., Darley, J. M., & Coke, J. S. (1978). Altruism and human kind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helping behavior. In L. Pervin & M. Lewis (Eds.), Perspectives in interpersonal Psychology. N. Y.: Plenum.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Bryan, J. H., & Test, M. A. (1967). Models and helping: Naturalistic studies in aid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400-407.
- Bryant, B. K., & Crockenberg, S. B.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oates, B., Pusser, H. E., & Goodman, I. (1976). The Influence of "Sesame Street" and "Mister Rogers' neighborhood" on children's social behavior in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 47, 138-144.
- Eisenberg-Berg, N., & Hand, M. (1979). The rela-

- 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Friedrich, L. K., & Stein, A. H. (1973). Aggressive and prosocial television programs and the natural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4, Serial No. 151).
- Friedrich-Cofer, L. K., Stein, A. H., Kipnis, D. M., Susman, E. J., & Clewett, A. S. (1979). Environmental enhancement of prosocial television content: Effects on interpersonal behavior, imaginative play, & self-regulation in a natural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37-646.
- Gagne (1980). Educational technology in phase? Educational Technology, Feb, 7-14.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Grusec, J. E., Kuczynski, L., Rushton, J. P., & Simutis, Z. M. (1978). Modeling, direct instruction, and attribution: effects on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14, 51-57.
- Grusec, J. E., Kortsak, P. S., & Simutis, Z. M. (1978). The role of example and moral exhortation in the training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9, 920-923.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taking, empathy, altruism, &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Lesser, H. (1977). Television and the preschool child. N. Y.: Academic Press.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 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1984).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6th ed., N. Y.: Harper & Row Publishers.
- Olejnik, A. B., & Mickinney, J. P. (1973). Parental value orientation and generosity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31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 J.: Prentice Hall.
- Reiser, R. A., Tessmer, M. A., & Phelps, P. C. (1984). Adult-child interaction in children's learning from Sesame Street. ECTJ, 32(4), 217-223.
- Rheingold, H. L. (1982). Little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adults, a nascent,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3, 114-125.
- Sagotsky, G., Schneider, M. W., & Konop, M. (1981). Learning to cooperate: Effects of modeling and direct instruction. Child Development, 52, 1037-1042.
-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 (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47-353.
- Stein, A. H., & Friedrich, L. K. (1972). Television content & young children's behavior. In J. P. Murray, E. A. Rubinstein, & G. A. Comstock (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Television and social learning.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Zarbatany, L., Hartmann, D. P., & Gelfand, D. M.
(1985). Why does children's generosity in-
crease with age, susceptibility to experimen-

ter influence or altruism? Chile Develop-
ment, 56, 746-756.